

‘물방울 화가’ 김창열, 광주 전시회 폐막 앞두고 방문

광주시립미술관에서 5월 6일까지



비우고 채우기 40년 ... 어울림으로 방울지다

지난 휴일 반가운 손님이 광주를 찾았다. 답수룩한 수염에 백발의 노(老) 화가는 아내, 지인들과 함께 광주시립미술관을 찾아 감회에 젖어들었다. 그는 미술관의 초대해 받아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전시 폐막을 10여 일 앞두고서야 미술관을 방문했다.

지난 27일 ‘물방울 화가’ 김창열(86) 화백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김창열’전(2월21일~5월6일)을 찾았다. 노 화백 옆에는 아내 마르틴(Martine) 여사, 평생 친구이자 동료인 박서보 화백과 윤명로 화백, 표미선 한국화협회 회장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날 무각사에서 만난 김 화백은 몸이 다소 불편해 보였지만 내뿜는 답변들은 진지하고, 또렷했다. 특히 작품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말할 때의 눈빛은 마주하는 사람들을 압도했고,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에는 “연애”라며 농 섞인 진심으로 웃음을 주기도 했다.

그는 광주시립미술관을 둘러보고 무각사에서 주지 청학 스님,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 일행 등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다. 김 화백은 “이번 전람회를 보니 ‘김창열’이라는 작가가 참 괜찮은 작가더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에게는 광주에서는 평생 첫 개인전인 이번 전시가 그만큼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다. 김 화백은 1963년 서울 신문회관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국내·외를 오가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개인전을 열어난 작가다.

“그동안 전람회 중 내 그림이 가장 돋보였어요. 공간을 나는 것에서부터 작품 배열·설치 어



왼쪽부터 박서보 화백, 마르틴 여사, 윤명로 화백, 김창열 화백,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

“형태없는 물방울로 조형성 추구는 사활 건 전투”

“젊을 때美서 인정 못받는다igo 화풍 바꾼 것 후회”

는 것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이라는 공간도 공간이지만 광주시립미술관만의 작품 설치 기법이 하나의 어울림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40년 넘게 물방울 하나만을 그려온 작가에게 물방울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처음 물방울을 만나고 40년이 흐른 뒤에 노 화가가 느끼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생각은 뭘까.

“저로서는 사활 건 전투나 다름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닮지 않은 물방울로 조형성을 추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죠. 다른 사람

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반복적 작업을 통해 비우고, 채우고, 시각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달마 대사는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한 뒤에야 득도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눈꺼풀도 잘라버렸죠. 하지만 저는 자해까지 할 용기가 없었으니 40년 넘게 물방울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 작품 하나하나에는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시회를 할 때면 보람을 느껴요.”

그가 평생 창작해 온 비정형의 물방울들은 이번 전시에서 60년대 초기작들과 함께 하나

의 어울림으로 다시 태어났다. 특히 전시장 입구에 걸린 1964년 작품 ‘제사’는 김 화백이 “전시장 입구에 걸어달라”고 당부했을 만큼, 특별한 작품이다.

“그 작품을 누구에게 선물로 줬는지, 그 당시 전시회에서 팔렸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2~3년 전에 누군가 내 초기작이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작품이었죠. 그렇게 내가 젊었을 때 그린 그 작품은 수십 년 만에 다시 내게 돌아왔습니다. 제 작품들이 대부분 대작인데 이 작은 작품을 전시장 입구에 설치해 관람객들이 제 작품에서 느끼는 위압감을 없애고 싶었어요.”

이 작품은 김 화백이 단순히 젊은 시절에 그린 작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답변 도중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뜻밖에 대답을 내놓았다. 현역 미술작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가 지난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한을 쏟아냈다.

“맨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기억이 아직도 환합니다. 꿈만 같았죠. 하지만 미국 땅에서 제가 초기에 그렸던 제사 같은 작품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 작품을 더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제 평생 후회되는 일이라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그렸던 그림을 더 밀지(그리지) 않았다는 것이요. 아직까지도 한 점이라도 더 나은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니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허구 대신 현실을 직시하자

수하 갤러리 이동환 초대전 ... 내달 6일까지

장지 위에 조형성을 무시한 채 큼지막하게 들어서 있는 멧돼지. 난폭한 동물 중 하나인 멧돼지는 큼지막하게 그려진 뿔과는 대조적으로 화려한 색의 옷을 입었다. 현실과는 다르게 왜곡돼 있고, 과장돼 있는 멧돼지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



‘외출’

수하 갤러리가 5월6일까지 한국화가 이동환씨를 초대해 ‘외출’전을 연다.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10호에서 50호 크기의 작품 14점을 선보인다.

그는 희망보다는 절망, 위로보다는 상처를, 웃음보다는 아픔을 주제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다. 그는 작품을 통해 허구적인 삶 대신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충고한다.

특히 최근작인 ‘황홀과 절망’ 연작에서는 집을 불태워 버리면서 갈 곳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진 인간의 모습을 담기도 했다. 장흥 출신으로 조선대 미술대학과 중앙대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그는 하정웅 청년작가상과 광주 신세계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226-848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수요일엔 문화 성찬

유·스퀘어 문화관, 마지막주 무료 음악회 등

유·스퀘어가 지역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 있는 날’에 무료 음악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30일 오후 6시30분에는 유·스퀘어 야외무대와 실내광장에서 ‘제1회 문화가 있는 날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창단된 중창팀 ‘친친클래식’을 초대해 남성 중창의 다양한 맛을 선사할 예정이다.

친친클래식(사진)은 유·스퀘어에서 진행한 통통클래식 등 금호아트홀 기획공연에 출연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드라마 및 영화 OST, 가곡, 가요, 클래식 등 음악을 편곡해 들려줄 예정이다.

다음달 28일에 열리는 ‘제2회 문화가 있는 날 음악회’는 국악을 주제로 꾸며지며, 6월25일에는 ‘광주내서벌말하모니오케스트라’가 관악 앙상블을, 7월30일에는 ‘CNS 금관 5중주’가 브라스 앙상블을 선보인다.

8월27일에는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DMA(박사과정)를 수료한 색소폰 연주자 박수용씨가 드럼, 베이스, 건반 등으로 구성된 팀과 재즈를 공연하고 9월24일에는 현악 4중주로 클래식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유·스퀘어는 통기타 등 대중음악과 탠고 등으로 무대를 꾸밀 계획이며, 문화가 있는 날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클래식 공연 입장료와 금호갤러리 전시 관람료를 할인할 예정이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문화가 있는 날 서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로비에서 로비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문의 062-360-843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월호 참사 추모’

광주시립국극단 ‘동기호태전’ 연기

광주시립국극단이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정기공연을 연기했다.

광주문화회관은 27일 당초 오는 5월 14~15일 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시립국극단의 창작 창극 ‘동기호태전’ 공연을 오는 9월4일과 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문화회관은 또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열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도 취소된 바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지원사업 광역특별회계 전환 반대”

광역 시도문화재단 “기초예술 육성·창작기반 붕괴 우려”

정부가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을 광역특별회계로 편성하려는 것과 관련, 광역 시도문화재단이 기초문화예술과 창작의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문화체육부와 기획재정

부 등에 이같은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광주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매칭형 보조사업으로, 올해 전국에 248억2000만원이 지원됐으며, 내년에는 31억

8000만원이 증액된 28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올해 163개 단체에 21억3000만 원을,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는 310여개 단체에 27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지

역문화예술진흥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특별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우려해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의 광역특별회계 편성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그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

다”고 지적하고 “문화진흥기금 재원이 담당하고 있는 ‘기초예술 육성’과 ‘창작기반 활성화 사업’은 도외시되어 지역예술가 단체에 대한 지원기회가 급격히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은 현행 체계를 중심으로 예산 규모를 확대할 것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재정 취지에 맞춰 기존 문예기금 외 별도의 지역문화·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의 개선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 광송리도로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